

구속된 이명박, 4평 독방에 수감

수인번호 '716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평 남짓한 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수인번호 716번으로 불리게 됐다.

지난 2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0시20분께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간단한 신분확인 후 건강 진단 등 절차가 진행됐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은 미결수 수의에 수인번호 716번을 달고 기록용 사진 촬영도 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는 점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을 동부구치소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한 구치소에 수용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인데다가, 공범 관계이자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은 김 전 기획관 등과 같은 구치소에 수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성동구치소에서 최근 서울동부구치소로 확장 이전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수용동이 있는 점, 검찰청·법원과의 거리 등도 고려됐다. 서울동부구치소에는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수감돼 있다.

화장실을 포함한 독거실 크기는 3.95평(13.07㎡)이다. 3평(10.08㎡) 공간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보다 상대적으로 수용공간이 넓다.

내부에는 TV, 거울,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박근혜 3평 독방보다 넓어 일반 수용자와 동일 생활 식사는 정해진 메뉴 따라야

등 일반 수용자 거실에 비치된 것과 동일한 비품이 마련됐다. 일상 생활 역시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식사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정해진 메뉴에 따라야 한다. 서울동부구치소의 이날 아침 식단은 빵과 잼, 두유, 양배추 샐러드다. 점심은 김치찌개와 멸치볶음, 저녁은 수제 비국과 어묵조림 등이 나온다.

식사가 끝나면 직접 설거지를 한

뒤 식기를 반납하는 것도 이 전 대통령 몫이다.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반 수용자와 동등하게 처우하며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도 함께 고려해 엄정하게 수용,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새벽 수감된 만큼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주말 사이 기록을 검토하고 26일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지난 22일 오후 11시 10분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기자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육군35사단 임실·순창대대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함께 지난 23일 순창군 생치면 일대에서 6·25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 1구를 발굴하고 있다. <사진=육군 35사단 제공>

산단 재해예방시설 근로환경 대폭 개선

통근버스 임차지원 등 5개 선정 전북도, 국비 56억2700만원 확보

전북도는 2018년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에 총 5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56억2700만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주거·문화·보육·안전·환경 등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모·심사하여 패키지 통합한 것이다.

이번 공모에서 전북도는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고용부), 산재예방시설(고용부), 개방형 체육관 건립 사업(문체부) 3개 사업에 총5건을 신청하여 5건 모두 선정(국비 5.627백만원)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은 산업단지 내 노동자의 출퇴근 등 교통서비스 지원을 하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군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제·완주·부안의 7개 산업단지에 국비 4억원이 지원된다.

'군산산업단지 내 공동 산재예방시설 지원'은 산업단지 내 체력증진시설 설치 사업으로 노동자의 작업환경 시설 개선을 위해 총 2억2천만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개방형 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은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주민 체육활동 공간으로 교차로 건립되는 다목적 복합문화체육센터에 어린이집 등을 설치, 지역 내 체육·문화공간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비 50억원이 지원된다. /김진성 기자

우체국 작은 대학 수강생 모집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철)은 우체국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화 교육 및 문화지원을 통해 국가기관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전북 최초로 진안 우체국에 '우체국 작은 대학'을 열고 수강생을 모집 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스마트폰 활

용, 명명나는 전래놀이, 천연비누(화장품) 만들기 등 3개 과정이며 과정별 1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4월 18일부터 6월 15일까지 주1회 2시간씩 9주간 과정으로 진행하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다.

신청기간은 26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기타 프로그램 및 수강 관련 궁금한 사항은 진안우체국 전화(063-430-5761)로 문의하면 된다. /최수호 기자

전북도·시군 공무원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오늘 공무원교육원서 교육

전북도는 26일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도·시군 소송 담당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소송수행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일선 공무원들의 송무역량 강화를 통해 각종 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직접 소송지휘를 담당하였던 박지원 변호사를 초빙, 소송의 절차 및 대응방법, 국가 행정 소송수행 시 유의사항 등 소송실무 전반에 걸쳐 현장감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인 전라북도 희망법률상담실 상담관 등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앞장서는 박정운 변호사를 통해 일선 행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중심의 교육으로 소송수행자들이 공감하고 더 쉽게 소송업무에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소송의 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교육을 가진다.

도 관계자는 "최근 복잡하고 다양화된 행정수요에 따라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송 결과가 지방재정과 정책방향, 행정의 신뢰에 영향을 미쳐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소송수행자들의 소송 실무능력을 강화하고 적정한 행정처리로 행정관청의 신뢰도 향상과 소송에 대한 승소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사회적 가치 실현 적극 나섰다' | 한전 전북본부, JB 가치창출위 출범

일자리 창출 등 4개 분과 구성

한전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락현)가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정책수행 시 노동, 환경, 복지, 윤리 등 모든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한전은 지난 23일 'JB 사회적 가치 창출 위원회'를 출범, Kick off 회의에서 4개 분과를 구성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일자리 창출 분과, 사회적 통념상 윤리적 책임 준수를 위한 윤리 경영 분과,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한 안전 환경 분과, 業 특성과 연계한 전략적 사회 공헌 및 협력적 노사 관계를 위한 사회공헌 상생 분과로 분과별 업무를 추진한다. 한편 위원회는 효율적 업무 추진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내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추진 과제 공모, 선정된 과제에 대해 분과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가시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성국 위원장(기획관리실장)은 "우리는 정부 정책 방향에 적극 동참하고,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영역에서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고 주문한 후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 속에서 보듬과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